

6. 모든 것을 덮는 사랑 / 최호균 목사

본문	사도행전 9장 10-19절	주제/사건	바울과 아나니아 / 미움, 원수사랑
문제제기	<p>1.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긴다. 관계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p> <p>2.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과 같다. 이게 가능한가?</p> <p>3.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렵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행한 일들을 아나니아도 들었다(사도행전 7장의 스테반의 순교)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온 목적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이다.</p> <p>4.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사울을 돕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닐까?</p> <p>5.나에게 늘 해를 입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고 싶지 않다. 늘 손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상적인 얘기다.</p>		
설교	<p>도입> 원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세상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것이다</p> <p>본문설명></p> <p>1.사울의 회심사건과 아나니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설명</p> <p>2.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 우리는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핍박자, 박해자, 교회에 해를 입히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p> <p>3.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었지만,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나니아는 동참하게 된 것 아닐까?</p> <p>메시지></p> <p>1.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다.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p> <p>2.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도울 이유가 있을 때 돕는 것이 아니다.</p> <p>3.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울 이유가 없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가, 그를 위해서 치료비를 지불한다. 사랑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버하는 것이다.</p> <p>4.사랑하고 용납하고 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p>		

고집을 꺾지 않았더라면. . .

사도행전 9장 10-20절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은새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때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상황을 조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움츠려들게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아직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열심히 특신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도바울의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핍박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 근처에 이르렀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고, 그 빛에 엎드려졌을 때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도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 10-11절을 보세요.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당황스럽게 방황하고 있는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실 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인이 사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 아나니아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사도바울이 회심한 그 때에,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에,

사람들에 의해 다메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 때에’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난 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을 쓴 이청준씨입니다.

2008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폐암으로 투병하던 때 한 신문에 흥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이니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쯤입니다. ‘aftershave lotion’이 다
떨어졌는지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니다.

아마 모든 남자들은 면도를 한 후에 로션을 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에게 새로 산 로션을 다 쓰고 죽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자분들 중에 아침에 립스틱을 바르면서, 과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립스틱을 다 바를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분이 있으신가요?

이청준씨의 기사가 참 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 혹은 ‘죽음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상황을 맞이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그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 혹은 예측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을 때, 필연적 갈등과 머뭇거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거꾸러졌을 때, 선지자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간 기도하는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정말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을 ‘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고집이 있습니다. 조금 포장해서 이야기 한다면, 자신의 ‘소신’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소신과 고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신뢰할 만한 것인지 물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그 때에 말입니다. 13절,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본 것,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르신 것. . .

이 모든 것을 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불편한 부르심과 불편한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바울의 회심 이유에 이방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인공이 없는 말씀, 혹은 사도행전이 9장에서 끝났을까요?
또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불순종하는 순간 다른 누구를 통해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부르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물으며 피해 갈
이유들을 계속해서 찾았죠.
유명한 사사 기드온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했죠.
그런가 하면 아예 부르심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끝까지 추적하셔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나니아의 기도가 이해가 될 듯합니다.
눈이 멀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미 스테반을 죽이던 자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그 사람에 대한 소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 듯합니다.

‘부르심’은 평안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니 이런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르심’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부르심은 순종이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순종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흔쾌히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과 같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부르심’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지만, 순종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부르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심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본능대로 사는 것이죠. 본능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사실, 가장 게으르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2. 부르심을 고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노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뇌가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버겁게 느껴져 때로 자포자기 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고민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하기도 합니다.

3.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단은 결심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결단은 순종을 가능케 하고, 순종은 평안을 만들어 냅니다.

고집을 꺾으니. . .

아나니아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므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8-20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은새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임 받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결과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쓰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인물이요, 이 후에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만났던 사도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이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사도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명확하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김병삼 목사의 생각)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기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순종’은 ‘기도’보다 위대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종종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의 길]에 보면, 그가 만났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퀴리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p. 108)

“믿음의 사람 퀴리어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않는 행동파였다. 한번은 퀴리어가 강사 목사 한 분을 브리저어브위어 철도역까지 마차로 모셔가고 있는데, 그분이 타야 할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기차를 놓칠까 염려한 강사 목사가 ‘지금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소?’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퀴리어는 말을 철썩 때리고 고삐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아니지요, 아직 아닙니다. 이 말이 해낼 수 있는지 보고 나서 기도합시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한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나타난 일입니다.

이런 일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만일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런 말이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최선책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차선책이 채택되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을까요?

참 무섭고 두려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혹,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최선책’의 위치에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않은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는 것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고집을 꺾으므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던지를 아는 것입니다.

1.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의 눈에 손을 대고 안수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러면 모두 ‘해야죠!’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동 다음에 찾아오는 생각 때문이죠.

“가능할까?”

중요한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순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도바울을 사도로 세웠던 인물이 ‘바나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사도바울을 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늘 말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 음식을 먹으며 강권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에 비하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에 포함 되었을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에 ‘제자들’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거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 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며칠’이 사도바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눈을 떠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지식은 일천했을 것입니다. 그 때까지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는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분을 주로 고백했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내면화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사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기적이 사울의 인생에 감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지적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있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사울의 눈에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울을 공동체에 받아 들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공동체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증’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면 저에게 추천사를 써 달라는 의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곳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저의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낙인’이 찍혀있는 요주의 인물입니다. 누군가 용기 있게

그를 변호하고 보증해주지 않았더라면 사도로써 쓰임 받은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사도바울을 공적 자리로 이끌어 낸 사람이라면, 아나니아는 사도바울이 공적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준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사도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이제 ‘배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유대인들을 매우 당혹케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9장 23=25절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도바울의 ‘3년의 공백’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갈 1:17-19)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등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고후 11:32-33)

우리가 ‘아라비아’라는 지명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당시 다메섹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바테안 왕국’입니다. 아바테안 왕국은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는 약간 동쪽지역으로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당시 아레다왕은 아메섹까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페트라가 바로 나바테안 왕국의 가장 번성한 도시입니다. 아마도 사도바울이 3년 정도 그 곳에서 머물러 복음을 전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숨겨진 3년의 세월, 그가 사도로서 자격을 갖추는 훈련의 시간들을 보냈던 아라비아는 아나니아와 연관된 일로 인해 일어났 것입니다.

